

## 따뜻한 마음으로 행복을 건넵니다

추운 겨울, 우리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이 떠오르는 계절입니다. 존재만으로도 든든한 우리 가족, 함께 손발을 맞추며 일하는 동료, 진심 어린 응원을 건네는 친구들... 이들의 삶에 행복이 가득하길 소망하는 삼표 가족은 주변의 어려운 이웃 역시 잊지 않았습니다. 표지 속 연탄을 나르는 삼표인의 손길 따라 따뜻한 행복도 함께 전달되길 바랍니다.

THEME CLICK  
삼표그룹 2018 결산

THEME TALK! TALK!  
간지계 운송·물류 절대 강자 ㈜삼표 D/T팀

이름다운 동행  
2018 삼표의 사회공헌 이야기



# 삼표가 GREEN 세상

SAMPYO MEMBERSHIP MAGAZINE  
2019 WINTER VOL. 61

## 2019년 열정과 끈기로 도약합시다



### 친애하는 삼표 가족 여러분,

2019년 기해년(己亥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60년 만에 찾아온 황금 돼지의 해인 만큼 모두의 기정이 그 어느 해보다 풍요로운 행복과 건강과 행운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각자 좋은 스타트를 하시길 바랍니다.

지난해 우리는 건설 경기 위축과 시장 수요 감소라는 큰 어려움 속에서도 삼표 가족 여러분의 애사심과 최선의 노력으로 적지 않은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위기 속에서도 또 다른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한 해였음을 마음속에 새기고, 새해에는 위기를 성장과 발전의 기회로 만드는 저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품고 시작하는 새해이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정작 현실은 지속적인 국내외 경제 환경 악화로 인한 불안과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국내 건설 산업은 부동산 규제 등의 악조건으로 인해 건설 소재에 대한 급격한 수요 감소가 이미 진행되고 있으며, 국내 SOC 사업 규모 역시 전반적으로 2017년 이전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여 건설 경기를 회복시키는 데는 상당히 역부족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수 산업에 기반을 두고 있어 국내 경기에 많은 영향을 받는 우리 그룹으로서 당분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지만, 외부 여건 호전에만 기대한다면 큰 해결책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우리 자신이 해결할 수 있도록 내부적인 능력을 키워 나가야만 합니다.

따라서 건설 산업 불황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이 상황을 절대적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한편, 오히려 장기적인 관점에서 올해가 “재도약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사업 효율성을 높이고 경영 기반을 튼튼히 함으로써 향후 불황이 끝날 때에는 가장 먼저 도약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현명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위기 극복을 위해서 원가 절감과 낭비 요소를 제거하여 원가 경쟁력을 높이고, 현금 흐름을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내실 경영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모든 사업 부문은 원가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모든 의사 결정을 이윤을 극대화하는 데 집중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사업 계획은 경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한 만큼 모든 사업 부문이 반드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모든 업무 프로세스를 새로운 시대에 맞추어 새롭게 개조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급변하는 시대의 중심에 있으나, 우리의 업무 프로세스는 과거 10~20년 전부터 고수하고 있는 방식이 대부분이고, 우리가 영위하는 사업은 향후 수요가 증가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감소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므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업무 효율화와 함께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고 실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각 사업 부문들의 모든 현 프로세스들(마케팅/고객 서비스, 영업/수주, 구매, 생산, 물류, 관리 등)을 선진화하고, 특히 IT에 기반한 자동화/무인화를 통해 획기적으로 업무를 개선하여 효율화하지 않는다면 미래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모든 사업 부문은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별로 적극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가 운영하는 사업의 시장 축소와 수요 감소를 대비하여 R&D를 통한 고부가가치 제품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보다 공격적인 영업 활동을 통해 기존 고객 유지는 물론 신규 시장과 고객을 창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여야 합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출현으로 기존 사업 영역이 쉽게 붕괴되는 현상이 자주 발생하여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우리의 사업 역시 기존의 패러다임으로는 수성하기 곤란한 경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삼표그룹이 지속 가능 기업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경쟁사보다 한발 앞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여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특수 콘크리트, 특수 시멘트, 고부가가치 PC 제품 등 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하겠으며, 이를 사업화하기 위해 영업 조직과 기술/엔지니어링 조직이 긴밀히 협업하여 종전보다 한층 공격적인 마케팅과 수요 창출 영업 활동을 경주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수요와 고객 니즈(Needs)를 빅데이터(Big Data)에 의해 분석하여 전략적으로 마케팅 활동을 전

개해 나간다면 타 기업과 차별화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진 우리 그룹이 독보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특히 작년 말에 통합된 환경 사업은 자원 고갈과 환경 중심 시대를 대비하여 기 보유하고 있는 핵심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노력을 당부합니다.

**끝으로, 우리 삼표그룹의 제2의 도약을 위해 인적 자원 역량 개발과 각 기능별 전문성 강화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미래를 준비함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투자는 인재 육성입니다. 이를 위해 그룹/본사는 직원들의 기본기를 다지는 데 보다 많은 육성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겠으며, 각 사업 부문 또한 사업에 특화된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모든 구성원의 업무 역량을 한층 배가시키고, 전문가로 성장할 기회를 확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역량은 긴 세월 동안 위기 극복 과정에서 기질적인 특성으로 축적된 **‘열정과 집념을 갖고 끈기 있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만의 DNA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강화해야 하며, 후배들에게도 물려줄 가장 가치 있는 유산입니다.

**삼표 가족 여러분,**

2019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목표는 **‘극세척도(克世拓道)’**로,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나간다’는 뜻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분명 우리는 최선을 다해왔고, 그만큼 성과를 이루어 왔으며, 앞으로도 반드시 잘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저는 삼표 가족 여러분께 자신감을 가져달라는 당부와 함께 여러분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철저한 자기관리와 업무 능력 개발, 가정과 일의 균형 있는 삶, 조직 내 원활한 소통과 팀워크 강화로 그룹과 개인 모두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삼표그룹 회장 정도원



## 己亥年 빛나는 미래를 위한 초석을 세웁시다

###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사다난했던 무술년이 지나고 기해년(己亥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황금 돼지해를 맞아 임직원 여러분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기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 친애하는 임직원 여러분!

작년 우리 회사는 임직원들이 각고의 노력을 했음에도 외부로는 가격 경쟁과 건설 업계의 불황이, 내부적으로는 시멘트 운반선의 문제가 겹쳐 2017년보다 매출은 15% 감소하였고, 영업이익은 적자로 전환되어, 그 결과 차입금이 800억 원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다른 양회사들도 불황의 어려움을 겪었지만 우리가 최하위의 실적을 보이고 있어, 우리 모두 경영 성과에 대한 반성과 끊임 없는 체질 개선을 통해 더 나은 회사를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작년에 어려움을 겪었던 선박 문제가 해결되었고, ESS 설비와 대체 연료 사용 확대 등 원가 개선 요인을 확보하여, 우리의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멘트의 주원료인 석회석의 공급과 품질에 대한 문제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지 못한다면 생존이 걸린 심각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두 힘을 합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친애하는 임직원 여러분!

올해는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그 효과를 장담할 수 없으며, 건설 시장은 아직도 어려운 상황인데도 탄소 배출권, 질산화물 부과금, 지역자원시설세 부가가 추진되고 있어 회사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경제 상황도 좋지 않아 보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유럽과 일본의 경기도 더욱 둔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올해에도 각종 제도와 시장 환경의 변화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저는 **“개혁과 도전의 자세로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여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석회석 문제를 해결하여 삼표시멘트가 업계 최고의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초를 다지는 한 해”가 되도록 만들고자 합니다.**

### 이를 위하여 먼저 고객 중심의 영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합니다.

내부 조직력과 역량을 높이고 고객과의 소통을 확대하여 판매 단가를 현실화하는 데 영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더불어 삼표그룹의 제품 및 기술과 연계한 차별화 정책을 통해 영업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 둘째, 엔지니어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설비관리 교육을 위한 러닝 코치 육성, 설비운전 표준화와 운전 기술 향상, 나아가 운전자동화시스템 도입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현장 중심의 평가 제도와 성과 연동형 보상 체계를 개선하여 성과 중심의 평가 보상 시스템을 조기 구축함으로써, 더 도전적이고 더 적극적인 성과 중심의 조직 문화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넷째, 임직원 모두를 위한 안전 경영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임직원 모두와 회사를 위하여 안전 관리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즐겁고 보람찬 회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안전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석회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모든 역량을 결집시킬 것입니다.** 임직원 모두 힘을 합쳐주시길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 삼표시멘트 임직원 여러분!

지난 한 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저와 함께 고민하고 고생한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삼표시멘트의 빛나는 미래를 열기 위한 초석을 만들고자 올해도 최선을 다하러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저와 함께 삼표시멘트의 내일을 열어 주십시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모두에게 건강과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라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삼표시멘트 대표 정대현

경영진 메시지 ①  
2019 정도원 회장 신년사

경영진 메시지 ②  
2019 정대현 대표 신년사

SPECIAL THEME  
2019 당신을 응원합니다

THEME CLICK  
삼표그룹 2018 결산

THEME PRISM  
2019년 핵심 트렌드 읽기

THEME TALK! TALK!  
건자재 운송·물류 절대 강자 (주)삼표 D/T팀

아름다운 동행  
2018 삼표의 사회공헌 이야기

동행 하나  
삼표인의 사랑 실천 연탄 봉사

동행 둘  
유소년 축구 경기 후원

동행 셋  
레미블루의 자선기금 마련 공연

CASE STUDY ①  
성공 글로벌 기업의 초심 경영

CASE STUDY ②  
성숙한 나로 거듭나는 길

포토 이벤트  
우리 아이들을 소개합니다

삼표인의 시선  
로마제국의 건축을 생각하다

TOPIC & NEWS

삼표인 소식

QUIZ & NOTICE

02  
06  
09  
10  
14  
16  
  
22  
24  
26  
28  
  
30  
32  
34  
36  
  
40  
48  
49



10

THEME CLICK

한 해 동안 우리 그룹이 걸어온 길을 돌아봤습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정진하며 좋은 결실을 맺은 삼표 가족. 2019년 더 큰 목표를 향해 출발합니다!



16

THEME TALK! TALK!

국내 건자재 운송·물류 시장을 선도하는 절대 강자 D/T팀. '물류의 모든 것'을 갖추고 새롭게 물류 혁신을 주도하는 이들의 노력을 들어봤습니다.



28

아름다운 동행

지역사회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삼표 가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삼표가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듭니다.



34

포토 이벤트

자녀들의 웃음소리만 들어도 배가 부른 것이 부모의 마음이었지요. 천진하고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을 순간 포착한 사진을 감상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주목도를 높이기 위한 오프라 찾게 글자 한 개당 1만 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을 증정합니다. 각 오프라자의 최초 접수자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니 오프라자를 발견하신 분들은 빠르게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참여로 더욱 완성도 높은 <삼표가 GREEN 세상>이 만들어집니다. 문의 및 접수 : 홍보팀 김미미 사원 kmm@sampyo.co.kr

심리학계의 석학 캐럴 드웍 스탠퍼드대학교 교수는 저서 <마인드셋>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이 인생을 바꾼다.” 2019년의 문을 활짝 열며 우리의 무궁무진한 성장 가능성을 생각해봅시다. 저 문 너머로 우리가 마주하게 될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더 큰 목표, 보다 원대한 꿈을 품고 새해를 시작하는 마음이야말로 내일의 커다란 변화를 이뤄내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번 호 <삼표가 GREEN 세상>은 여러분의 힘찬 시작을 응원하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기분 좋은 에너지로 마음을 충전하고 다시 한 번 새롭게 출발해볼까요?

당신을 응원합니다



## 삼표그룹 2018 결산 우리가 걸어온 행복한 여정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그룹은 어떤 성과와 결실을 이루었을까? 2018년의 여정을 돌아보며 삼표인에게 의미 있고 특별했던 순간을 짚어본다.

정리 편집실

JANUARY

# 1

### 2018년 1월 2일 정대현 (주)삼표시멘트 대표이사 취임

정대현 대표이사는 삼표시멘트 대표이사 취임식에서 새로운 변화와 혁신의 비전을 제시했다. 취임식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시멘트 공장이자 아시아 단일 최대 공장인 삼표시멘트가 설립된 지 61년을 맞이하는 중요한 해에 대표이사를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전한 정대현 대표이사는 “앞으로는 기존의 틀을 깨고 다양한 고객 창출을 위한 영업 확대 등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모두가 혁신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본에 충실한 경영 기초 확립 △차별화된 영업 전략 수립을 통한 수익성 개선 △공정하고 명확한 평가를 통한 사업 목표 달성 △활기찬 조직 문화 형성 등 네 가지 경영 비전 및 목표를 제시하며 삼표시멘트의 새로운 도약을 알렸다.



JUNE

# 2

### 2018년 6월 14일 (주)삼표시멘트, 탄소 배출권 경쟁력 강화

삼표시멘트는 지난해 저개발 국가의 탄소 배출 저감 및 취약 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동참하는 방식으로 탄소 배출권을 확보해 나갔다. 2018년 6월 미얀마에서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이사장 강창희), 미얀마 환경부 등과 협약식을 가진 삼표시멘트는 ‘고효율 콕스토브’ 9만 대를 5년에 걸쳐 보급하기로 했다. 콕스토브는 점토와 시멘트를 섞어 제작한 품로 형태의 취사도구로 열효율을 44% 향상시켜 탄소 배출량과 나무 땔감 사용량을 줄이고 조리 시간을 단축하는 데 효과적이다. 콕스토브가 보급되는 미얀마 중북부 지역은 극심한 대기오염과 사막화로 거주민들이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 삼표시멘트는 이 지역에 신형 콕스토브를 보급해 ‘해외 상쇄 배출권’ 형식으로 상당량의 탄소 배출권을 확보하게 됐다. 해외 상쇄 배출권이란 선진국이 개도국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투자나 기술을 제공해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고 이 감축량을 자국으로 가져와 세계 탄소 배출량을 저감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다. 환경과 미래를 생각하는 삼표의 경영 철학은 2019년에도 계속된다.



JULY

# 3

### 2018년 7월 2일 (주)삼표, 대표이사에 이오규 사장 선임

지난해 7월 삼표는 이오규 신임 대표이사 사장을 경영지원총괄에 선임했다. 이오규 대표이사는 광주상고와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983년부터 2015년까지 (주)두산과 두산인프라코어(주)에서 33년간 근무했다. 이 중 2011년부터 5년간은 두산인프라코어(주) 사장을 지낸 바 있다. 새로운 리더와 함께 새롭게 출발한 삼표, 2019년의 행보가 더욱 주목된다.





AUGUST

# 4

**2018년 8월 30일**  
삼표그룹,  
김해 드라이몰탈 공장 준공

삼표그룹은 작년 8월 경남 김해시에 연산 70만 톤 규모의 드라이몰탈 공장을 건립했다. 김해공장은 삼표그룹의 세 번째 드라이몰탈 공장으로서, 경남 김해시 진영읍 소재 약 1만 7,000㎡ 부지에 준공됐으며 2018년 9월 1일 첫 생산 및 출하가 시작됐다. 2014년 화성, 2016년 인천에 드라이몰탈 공장을 준공, 연간 140만 톤을 생산해온 삼표그룹은 김해 드라이몰탈 공장 가동으로 연간 생산 능력이 210만 톤까지 증가해 단숨에 업계 2위로 올라서게 됐다. 삼표그룹 관계자는 “김해 드라이몰탈 공장 가동을 통해 전국으로 공급망이 확대되면서 보다 많은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됐다”며 “커지는 건설 업계의 드라이몰탈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공급 라인 확대, 제품 개발 등에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SEPTEMBER



**2018년 9월 19일**  
그룹웨어  
‘삼표블루샘’ 리뉴얼

2018년 9월, 사내 업무 인트라넷인 ‘삼표블루샘’의 새로운 단장으로 협업 문화가 한층 강화됐다. 꾸준히 성장하는 회사 규모에 맞춰 계열사, 부서, 직원 간 소통과 협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06년 그룹웨어 도입 후 처음으로 대대적인 개편 작업이 이루어진 것. 각 계열사와 부서, 팀, 개인 등의 일정을 통합 관리하는 기능은 물론 회의실 등 공유 자원 예약과 사용 승인도 통합적으로 할 수 있으며 사용자 인터페이스(UI)와 사용자 경험(UX) 측면의 기능도 강화했다. 초기 화면에서는 업무, 프로젝트 진행 현황 등을 한눈에 볼 수 있어 임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리뉴얼된 그룹웨어는 임직원 사이의 원활한 소통과 정보 교류를 도와주는 매개체로 자리 잡고 있다.

# 5

**다양한 특수 콘크리트  
개발 및 브랜드화**

지난 한 해 우리 그룹은 ‘콘크리트 브랜드화’를 시도하면서 업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 일으켰다. 2018년에만 3개의 콘크리트 신제품을 시장에 선보이며 큰 주목을 받았다. △혼자서도 타설 가능한 자기 충전(Self Compacting) 방식의 ‘블루콘 셀프(BLUECON SELF)’ △초기 압축 강도를 높여 타설 후 12시간 만에 거푸집 탈형이 가능한 ‘블루콘 스피드(BLUECON SPEED)’ △영하 10℃에서도 타설이 가능한 특수 콘크리트 ‘블루콘 윈터(BLUECON WINTER)’는 2018년 우리 그룹 최고의 기술력으로 탄생한 삼표의 자부심이라고 할 수 있다.

홍성원 삼표산업 대표이사는 “앞으로는 획일적인 건축 문화에서 벗어나 다양한 용도와 개성적인 건축물이 크게 늘 것”이라며 “이러한 건축 트렌드 변화로 특수 콘크리트 시장도 커질 것이므로 특수 콘크리트 개발에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우리 그룹은 박사급 전문 인력을 임원으로 선임하는 등 핵심 인재 양성에 힘을 쏟고 해외 사례 견학, 프랑스를 비롯한 건설 선진국과의 협업 등 다방면으로 특수 콘크리트 개발에 힘을 쏟아 결실을 맺었다.

각 제품의 특징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신제품 ‘네이밍’에도 공을 들였다. 우리 그룹은 업계 최초로 레미콘에 ‘블루콘’이라는 브랜드명을 만들어 밝고 긍정적인 레미콘 이미지로 차별화에 성공한 바 있다. 이번 신제품 역시 각 제품의 특성을 직관적으로 나타내는 단어인 셀프(SELF), 스피드(SPEED), 윈터(WINTER) 등을 붙이는 방식으로 제품명을 제작해 이름만 봐도 제품의 특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 그룹은 2019년에도 7~8가지의 특수 콘크리트를 새롭게 선보일 계획이다.



AUGUST

**2018년 8월 31일**  
특수 콘크리트 ‘블루콘 셀프’ 출시  
2018년 특수 콘크리트 시장 공략에 나선 우리 그룹. 2년여간의 연구 개발 끝에 탄생한 이 제품은 압축 강도 21MPa(메가파스칼) 이상에서도 타설 가능한 ‘자기 충전 콘크리트(Self Compact Concrete)’다.



OCTOBER

**2018년 10월 15일**  
특수 콘크리트 ‘블루콘 스피드’ 출시  
작년 10월에는 거푸집 제거 등 빠른 탈형으로 공사 기간을 앞당길 수 있는 조강 콘크리트인 ‘블루콘 스피드’가 탄생했다. 동절기(11~3월) 공기 단축, 안전성 확보, 비용 절감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이다.



NOVEMBER

**2018년 11월 12일**  
특수 콘크리트 ‘블루콘 윈터’ 출시  
11월에 출시된 블루콘 윈터는 내한성을 높인 제품으로 영하 10℃에서도 별도 가열 양생(굳히기) 없이 최소한의 보온 조치로 초기 동해를 받지 않고 정상적인 강도 발현이 가능하다.



## 알아두면 유용한 2019년 핵심 트렌드 읽기

삼표인들이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한발 앞서 대비할 수 있도록  
<트렌드 코리아 2019>에서 선정한 핵심 트렌드를 소개한다.

참고 <트렌드 코리아 2019> 미래의창, 연합뉴스

### **개념에 살고 죽다 개념을 연출하라**

국내 소비 시장에 '개념'을 중시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 중심엔 영상과 이미지로 소통하며 소비할 때 첫인상, 브랜드의 개념을 중요시하는 '플로팅(Floating)' 세대가 있다.

소위 '인생 샷'을 위해 특별한 이벤트를 찾아 나서는 이들 덕분에 공간 전체를 포토존으로 꾸민 비주얼 전시회 등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또 실용적인 소비보다 유희성이 강한 '개념'이 있는 소비가 호응을 얻으면서 다양한 개념을 내세운 마케팅과 상품이 등장했다. 이제는 마케팅이 아니라 개념을 해야 하는 시대. 개념이 확실할수록 강력한 로열티를 가진 소수의 마니아 층을 형성할 수 있고 그 입소문이 더 큰 시장을 여는 길로 이어질 것이다.

### **유통이 세포 단위로 분화한다고? 세포마켓**

SNS에서, 영상 기반 플랫폼에서 자신의 재능을 바탕으로 한 정보와 상품을 판매하는 1인 사업자를 '셀슈머(Sellsumer)'라고 부른다. 이러한 셀슈머가 주도하는 극도로 세분화된 세포 단위의 시장이 바로 '세포마켓'이다. 세포마켓의 주역은 단연 1인 크리에이터와 유투버다. 이들은 자신의 감각과 전문성을 장점으로 자기만족을 이루며 유급 생산을 한다.

세포마켓의 성장 동력으로는 결제 기술이 발달하며 개인의 유통 시장 진입이 쉬워진 점, 일과 취미를 병행해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N잡러의 증가 등이 있다. 그러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1인 판매자들의 불법 거래도 만연해서 이러한 점은 세포마켓을 이용할 때 유의해야 한다.

### **밀레니얼 세대를 공략하는 새로운 복고 뉴트로**

영국의 전설적인 록밴드 '퀸'을 다룬 영화 <보헤미안 랍소디>는 당시 퀸에 열광했던 세대보다 밀레니얼 세대(1980년대 초반~2000년대 초반에 출생한 세대)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처럼 과거의 추억을 새롭게 재해석한 콘텐츠가 밀레니얼 세대를 중심으로 소비되는 현상을 '뉴트로(New-tro)'라고 한다.

밀레니얼 세대를 겨냥해 마케팅을 하는 기업에게 뉴트로라는 하나의 기회다. 우선 자사만의 독창성과 전통성을 확보하고, 자사의 상품에 대해 '그 물건만의 이야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뉴트로 현상이 기업과 소비 시장에 던지는 시사점이다.

###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필환경시대**

환경친화적인 소비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필(必)환경시대, 전 세계적으로 생활 속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최소화하고 어쩔 수 없는 것은 재활용하자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잔인한 동물실험을 거부하는 운동으로 이어지며, 나아가 동물과 인간의 복지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연결된 것으로 간주하는 사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자원과 환경의 파국을 막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연대와 협력, 소비자들의 작은 실천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어린 시절부터 환경보호 습관을 체화할 수 있는 '에코 페어링(Eco Parenting)'과 같은 친환경 소비자 교육의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친환경 트렌드에서 필환경시대로 이행하는 과도기인 2019년, 느리지만 지속적으로 성장해온 환경 지향 소비가 질적, 양적으로 모두 성숙하게 자리 잡는 한 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데이터가 산업 지형을 바꾼다? 데이터 인텔리전스**

데이터 인텔리전스의 핵심은 인공지능으로 빅데이터를 식별하고 분석하는 기술을 적용해 고객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역량이다. 이 같은 데이터 주도형 의사결정을 '데이터'와 '결정'을 합친 새로운 용어인 '데시전'이라 부른다.

데시전의 활용은 첨단 IT 기업뿐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패션, 물류, 금융 등 다양한 산업으로 확산되고 있다. 고객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옷을 골라주고, 피부 상태에 맞는 제품 추천이 가능해진 것.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는 업계 상위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업 중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기업이 생산성과 이윤 면에서 경쟁사보다 더 앞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처럼 앞으로는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고차원적인 데이터 지능 개발 여부가 기업의 승패를 가를 것으로 예측된다.

### **다시 태어나는 공간, 카멜레온**

카멜레온이란 특정 공간이 협업, 체험, 재생 등을 통해 본래 가지고 있던 하나의 고유한 기능을 넘어서 새로운 정체성의 공간으로 변신하는 트렌드를 말한다.

카멜레온 현상은 현대의 시장 환경이 급변한 데 따른 필연적인 변화다. 온라인이 발달하면서 위축된 오프라인 상권의 고객 확보에 대한 절박함이 커지고 있고 기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실내로 모여드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을 위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는 과제도 생겼다.

공간의 재탄생은 다른 업종과 콜라보레이션을 하기도 하고 첨단 IT 기술을 장착해 온라인과 보완관계를 구축하거나 나아가 도심의 낡은 시설을 재생하기도 한다. 앞서 언급한 '개념'나 '뉴트로' 트렌드가 가장 잘 구현될 수 있는 영역도 바로 '공간'이다. 그만큼 공간은 정체성과 문화를 담을 수 있는 좋은 그릇이다. 이제 침체된 공간을 재탄생시켜 새로운 활력을 모색할 때다.

## 건자재 운송·물류 절대 강자 (주)삼표 D/T팀 막강 맨파워 발휘! 시스템 고도화 통한 물류 효율화 달성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도 제때 제 곳에 운반되지 않으면 제대로 쓰이지 못한다. 특히 건설기초소재는 정해진 공기(工期)에 따라 운반돼야 하기 때문에 물류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주)삼표 D/T팀(이하 D/T팀)이 그룹 내 가장 많은 인원으로 구성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D/T팀은 지입 차량, 통합 관제실, 주유소 등 하드웨어는 물론 최첨단 GPS시스템, 출하자동시스템 등 소프트웨어까지 '물류의 모든 것'을 갖췄다. 국내 건자재 운송·물류 시장을 선도하는 D/T팀을 직접 만나보았다.

인터뷰이 D/T팀 변동진 팀장 글 홍보팀 이선화 대리 사진 홍보팀 김미미 사원

### Q. D/T팀을 소개해주세요.

본사와 통합관제실, 영업소, 주유소 등에 40여 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삼표에서 인원이 가장 많은 팀이죠. 주로 덤프트럭 운송 영업과 출하 통제·관리 등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그룹에서 생산한 골재 등과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원석·마사 등)를 운송해 생산 효율을 높이고 외부 운송으로 추가 수익도 내고 있고요. 과거에는 골재 운송 업무가 대부분이었지만 영역을 건설 폐기물, 토사 등으로까지 넓혔습니다. 물류비 절감을 위해 복화노선 개발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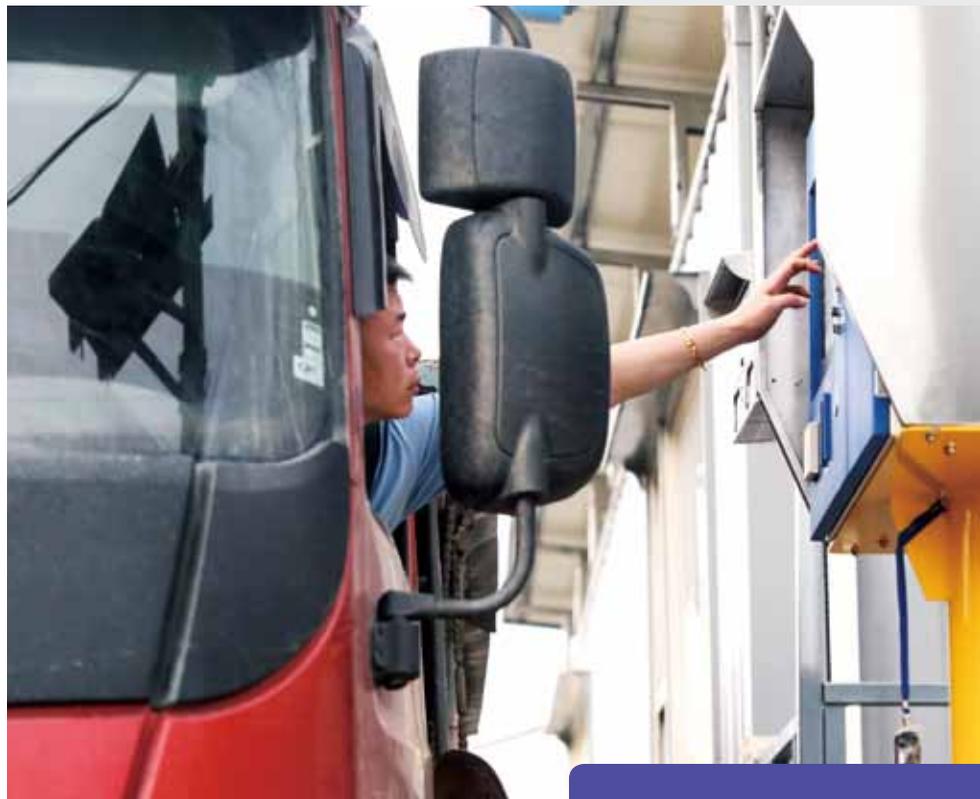
### Q. D/T팀의 강점을 말씀해주세요.

국내 건설기초자재 덤프 시장에서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 지입 차를 많이 보유했다고 해도 30~40대 수준인데, 우리는 고정 차량 500대, 상인 차 최대 1,000대 등 1,500대까지 운영 가능합니다. 라이벌도 없이 절대적 1등인 셈이죠.(웃음)  
가파른 매출 성장세도 저희 팀의 자랑거리입니다. 외부 운송營業을 늘려 최근 5년간(2013~2018년) 매출이 225%나 성장했습니다. 작년 9월에 구축한 통합관제실을 통해 물류 운영 효율성도 키웠습니다. 지역에 산재된 관제 업무를 본사로 집중해 출하자동시스템을 정착시킨 거죠. 최근 운반 단가를 자동으로 산출하는 로직도 정립했습니다. 대개 운반 단가는 유동적인 시황과 주관적인 요소들이 반영돼 들쭉날쭉합니다. 저희는 GPS 데이터 등을 활용해 거리·시간 등에 따른 운반 단가가 자동으로 산출되는 시스템을 구축 중입니다. 이런 로직을 통해 운반 단가 산출을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함께 협력하며 '최고'를 만들어내는 D/T팀





(왼쪽부터) ㈜삼표 D/T팀 북부물류영업소 고영민 사원, 정덕신 대리, 정원주 소장, 이병진 사원



출하자동화를 통한 물류 효율화·고도화, 원가 절감 실현!

**Q. 영업소들이 전국으로 산재해 있고 팀원도 많아 부서 운영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물리적 여건은 어렵지만 본사·현장 직원들이 팀장을 이해하고 신뢰해줘서 팀이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담당자를 통해 각 영업소의 이슈를 매일매일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달에 두 번씩 각 영업소를 방문해 현장과 직접 소통하고 있습니다. 영업소 직원들과 만나 식사 등을 하며 사소한 부분까지 챙기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1박 2일 워크숍도 1년에 한 번씩 실시합니다. 이 자리에서 팀원과 서로 얼굴도 익히고 일하면서 느끼는 애로 사항 등을 공유하며 팀워크를 다집니다.

팀 분위기도 수평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팀원들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소속감도 고취되고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요. 팀 운영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팀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최대한 반영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서원들이 각자의 의견을 가감 없이 말할 수 있도록 모바일 메

신저 익명 투표 기능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개인 면담 시간을 가집니다. 업무할 때 어려운 점과 사적인 고민까지 듣고 업무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조언하기도 합니다.

**Q. 팀원들이 돌아가며 회의를 주도한다고 들었습니다.**

팀원들 개개인이 각자 맡은 업무의 전문가라고 생각해서 이 같은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재자가 회의 주제를 설명하면서 업무에 대한 이해도와 자신감을 자연스럽게 키울 수 있죠. 각자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더 좋은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고요. 확실히 이런 회의 덕에 업무 시너지가 더 커졌습니다. 회의를 이끌기 위해선 팀 전체 업무를 파악해야 하는데, 이때 팀원들과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주고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업무와 연관된 다른 팀원의 일을 돕게 되고, 동시에 각자 업무도 더 챙기게 됩니다. 팀원 간 관계도 돈독해지고요.



물론 회의를 주도하는 팀원들의 부담도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도 발표(PT) 스킬과 논리력, 리더십 등 다방면의 업무 능력을 키우는 데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고맙게도 팀원들도 배우는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Q. 회식 분위기도 화기애애할 것 같습니다.**

D/T팀은 모두 즐거운 회식을 추구합니다. 팀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점심 회식,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 방문 등을 해봤죠. 최근에는 간단히 저녁 식사 후 볼링을 쳤는데 반응이 좋았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술자리는 다음 날 업무에 지장을 주기도 하잖아요. 함께 볼링을 즐기며 팀원과 추억도 쌓고 단합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숙취로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 볼링 회식 '강추(강력 추천)'합니다.

**Q. 2019년 D/T팀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올해 목표는 팀 매출 1,000억 원 달성(연평균 12% 성장)과 물류 시스템 고도화입니다. 건자재 물류 시장 선도와 출하자동시스템 정착, 운반 단가 자동 산출, GPS 장착·활용, 신규 플랫폼 연계 등 이미 이룬 성과가 많지만 안주하지 않고 더 높이 도약하고 싶습니다. 전반적인 건설 업계 분위기가 녹록지 않다지만 더 고도화된 물류 시스템으로 견고한 우위를 지키겠습니다. 또 1,000억 원 매출을 달성해 그룹 전체 성장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습니다.

**우리 팀, 이런 점이 좋아요!**

**고마운 우리 팀원들!**  
저를 신뢰하고 잘 따라줘서 고맙습니다. 각자가 기대하는 업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팀장으로서 최대한 지원할 테니 맡은 바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으면 편하게 저를 찾아주세요.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올해도 파이팅입니다!



변동진 팀장

배려심 넘치는 팀장님



강수정 사원

화목하고 돈독한 분위기



윤진일 사원

젊고 활기찬 팀 분위기



정바울 사원

너무 많아 하나만 고르기가...



김재용 사원

개인사를 공유할 수 있을 정도로 친화적인 팀 분위기



김태균 대리

물류 조직에서 가장 큰 매출을 담당하고 있는 존재감



박순찬 대리

의견 개진이 자유로운 수평적인 관계



모철환 대리

넘치는 활력과 에너지



황승범 사원

## 2018 사회공헌 이야기

# 삼표 가족이 전하는 나눔의 가치

지난해 우리 그룹은 녹록지 않은 경영 환경 속에서도 나눔의 가치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 단순 기부에만 머물지 않고 환경 미술 캠프, 봉사활동 등 다채로운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 2018년 사회공헌 활동을 돌아보고, 우리 그룹이 실천한 나눔의 가치를 되새겨보자.

글 홍보팀 이선화 대리



### 학생 200명에게 장학금 지원

우리 그룹은 '정인옥학술장학재단'을 통해 지난해 200여 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했다. 지난 1993년 설립된 이 재단은 성적이 우수하거나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 200여 명을 매년 선발해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재단 창립부터 2018년까지 25년 동안 장학금 수혜를 받은 학생들이 약 5,000명, 누적 지원 금액만 60억 원에 달한다. 2008년부터는 조선족 등 해외 동포 학생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수혜 대상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해당 재단은 고(故) 정인옥 명예회장의 나눔 경영 철학을 실천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고 정인옥 명예회장은 생전 "기업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고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발굴해 육성하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임을 강조했다.



1. 연천 어린이 환경 캠프 2. 연천군 장학금 전달식 3. 포천 장학금 수여식

### 소외 지역 연계 사회공헌 눈길

전담 부서를 통한 체계적인 사회공헌 활동도 돋보인다. 그룹 사회공헌팀은 수혜 지역과 대상에 맞춘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삼표와 그린(GREEN)' 캠페인을 수시로 펼치고 있다. 작년에는 환경 미술 캠프 '삼표가 그린 지구', 연탄 나눔 봉사 '삼표와 그린 따뜻한 겨울' 등을 실시했다.

소외 지역과 연계한 나눔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쳤다. 지난해 8월에는 경기도 연천 지역의 유소년 축구단인 '연천 미래 클 U-15'에 장학금을 지원했다. 이 후원금은 전지훈련, 유니폼 제작 등에 쓰인다. 연천 유소년 축구단 후원은 스포츠 교육을 받기 어려운 지역의 학생들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작년 10월에는 강원도 삼척시에서 '파란하늘! 파란꿈! 어린이 백일장'을 개최했다. 이 행사는 삼척 지역 어린이들의 문학적 소양을 키우는 데 도움을 주고자 기획됐다. 우리 그룹 사회공헌 관계자는 "문화·스포츠 혜택을 누리기 힘든 지역의 학생들이 다양한 꿈과 재능을 키울 수 있도록 돕고자 계획된 사회공헌 활동"이라며 "사회공헌 사업을 확대 추진함으로써 지역과 지역민들과의 상생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현실적 도움 주는 사회공헌 기획할 것

전국 각 사업장도 자체적으로 지역민과 상생할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삼척의 대표 향토 기업인 삼표시멘트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년 1회 직원들을 위한 건강 증진비를 현금 대신 '삼척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골목 상권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되는 이 상품권은 삼척 관내에서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경기 안성, 충남 예산 등의 사업장도 관내 소외 이웃을 위해 장학금과 물품 등을 지원하고 있다.

매년 겨울마다 그룹 차원의 연탄 나눔 봉사도 실시한다. 2014년부터 매년 창립 기념일(12월 1일) 전후로 에너지 빈곤층에게 연탄을 배달하고 있다. 2018년 연말에는 서울과 삼척에서 두 차례에 걸쳐 연탄 1만 1,500장을 전달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

우리 그룹은 앞으로도 현장 경험이 많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단체 등과 파트너십을 맺고 보다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기획할 계획이다. 박상현 사회공헌팀 부장은 "단발성 활동이 아닌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된 이웃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삼표인의 사랑 실천 연탄 봉사 “훈훈한 나눔으로 추위 녹여요”

연말연시가 되면 더욱 힘들고 외로워지는 이웃들이 있다. 날씨가 영하권으로 뚝 떨어지면 이들은 더욱 움츠러들게 된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삼표인들이 나눔의 정을 보였다. 연탄 봉사로 훈훈했던 삼표인들의 연말을 소개한다.

글 홍보팀 이선화 대리 사진 홍보팀 김미미 사원



### 이웃 사랑 열기 가득했던 현장

“즐거운 고생(?)을 경험했네요.,” “좋은 일에 손가락 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그룹의 52번째 생일을 기념해 열린 ‘삼표와 그린(GREEN) 따뜻한 겨울,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에 참가한 삼표인들의 소감이다. 예년보다 더 많은 양의 연탄을 직접 날라 몸은 피곤했지만 표정은 뿌듯해 보였다.

지난해 11월 29일 오후 2시, 서울 성북구 국민대 학군단 앞. 연탄 배달을 위해 바쁜 시간을 쪼개어 우리 그룹 직원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다. 삼표자원봉사단원을 비롯해 각 계열사에서 자발적으로 신청한 60여 명이 함께했다.

우리 그룹은 성북구청을 통해 정릉동 일대 50가구에 연탄 1만 장을 전달했다. 임직원들은 이 중 연탄 2,800장을 14개 가정에 직접 배달했다. 삼표자원봉사단 단장인 전종현 삼표산업 회계담당 상무는 “삼표 임직원들이 직접 배달한 연탄으로 어려운 주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봉사자들은 비닐 우의 위에 파란 조끼를 입고, 손에는 비닐 위생 장갑과 목장갑을 끼는 등 만반의 준비를 했다. 그리고 배정받은 집을 기준으로 길게 줄을 섰다. 비탈진 골목길 초입에 연탄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날 연탄 배달은 옆 사람에게 릴레이로 넘겨주는 방식으로 한 장에 3.6kg이나 되는 연탄을 쉬지 않고 옆 사람에게 건네주다 보니 저절로 앓는 소리가 나왔다.



골목이 비좁아 릴레이로 전달하기 힘든 집은 남자 직원들이 연탄 3~4장씩을 안고 배달했다.

30분도 안 돼 비닐 우의는 땀이 차 수증기가 맺혔다. 몇몇은 얼굴에 묻은 연탄재를 닦지 못한 채 배달에 집중하기도 했다. 그래도 누구 하나 꺾이지 않고 웃는 얼굴로 연탄을 날랐다. 이날 연탄 배달은 어두워져서야 끝이었다. 다행히 다친 사람 하나 없이 연탄 2,800장을 나를 수 있었다. 연탄 봉사에 참가한 최장현 삼표산업 몰탈본부 상무는 “수년째 봉사에 참가하면서 느끼는 것은 삼표에 주변 어려운 이웃과 마음을 나누는 따뜻한 사람이 많다는 점”이라며 “앞으로도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고 소외된 이웃을 살피는 그룹 차원의 봉사가 계속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 땀 흘리며 따뜻함 나누는 연탄 나눔 봉사

곧이어 삼척에서 연탄 나눔 봉사 바통을 이어받았다. 삼표시멘트 삼척공장 자원봉사단 워드(WITH) 소속 20여 명이 지난해 12월 1일 오전 9시부터 4시간 동안 삼척 관내 소외 이웃에게 연탄 1,500장을 배달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 후향색 작업복을 입은 봉사자들이 연탄을 두 장씩 들고 좁은 골목길을 바쁘게 오갔다. 수은주가 영하권까지 내려갔지만 봉사자들 열골엔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혔다. 연탄 봉사에 참석한 한 사우는 “막상 배달해보니 별로 힘들지 않다”며 “이웃들이 겨울을 잘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정말 좋다”고 뿌듯함을 전했다.



### ‘삼표연탄’으로 받은 사랑 보답, 5년째 이웃 사랑 실천

추위에 떠는 이웃을 위한 우리 그룹의 연탄 나눔 봉사는 2014년부터 시작돼 지난해 5회째를 맞았다. 연탄 나눔 봉사는 우리 그룹의 전신인 강원그룹이 ‘삼표연탄’으로 전 국민에게 받은 사랑을 보답한다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시대가 흘러 옛 연탄의 명성은 도시 가스에 밀려났지만 아직도 겨울 나기가 버거운 서민들에게 연탄은 따뜻한 버팀목이 돼주고 있기 때문이다. 삼표연탄으로 받은 사랑은 우리 그룹이 국내 건설기초 소재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 됐다. 건설 소재 리딩 그룹의 위상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삼표의 뜨거운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 유소년 축구 경기 후원 연천 미라클 축구단, ‘삼표’ 유니폼 입고 ‘평화의 골’ 쏜다

우리 그룹이 스포츠 영역까지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소외 지역의 축구 꿈나무 육성을 위해 후원을 지원한 사례를 소개한다.

글 홍보팀 이선화 대리 사진 홍보팀 김미미 사원



### 연천 유일의 유소년 축구단, 삼표 날개를 달다

지난해 10월 31일, 강원도 인제군 공설운동장에서 열린 남북한 청소년 친선 축구 경기에 참가한 연천 미라클 U-15 축구단(이하 연천 미라클)은 우리 그룹이 후원한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나섰다.

경기도 연천군에서 나고 자란 15세 이하 학생들을 주축으로 구성된 연천 미라클은 작년 3월 창단된 신생 축구단이자 연천군의 유일한 유소년 축구단이다. 차승룡 총감독과 조성환 감독의 지휘 아래 15세 이하 청소년 18명과 코칭스태프 5명 등 총 23명이 한 팀을 이뤘다.

우리 그룹은 올해 8월 축구단에 후원금 1,000만 원을 지원했다. 후원금은 선수들의 기량 향상을 위한 전지훈련, 유니폼 제작 등에 쓰였다. 차승룡 연천 미라클 총감독은 “삼표그룹과 연천군의 전폭적인 후원으로 연천 지역의 축구 꿈나무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며 “앞으로도 삼표그룹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 남북 평화의 메신저, 연천 미라클

이번 후원은 체계적인 스포츠 교육을 받기 어려운 지역의 학생들을 지원하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그룹 관계자는 “연천 지역 유소년 축구 선수들이 세계 최고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운동에만 집중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연천 미라클은 제5회 아리스포츠큐프 국제 유소년 축구 대회의 번외 경기로 열린 북한 4·25체육팀과의 친선 매치에서 1대 1로 비겼다. 남북체육교류협회가 추진한 아리스포츠큐프 축구 대회는 작년 10월 28일부터 11월 2일까지 강원도 춘천과 인제군 일원에서 남북한, 중국, 베트남, 이란, 우즈베키스탄 등 6개국, 8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지난해 5회째를 맞은 이 대회는 남북 긴장 완화와 체육 교류의 창구 역할을 해왔다.

김광철 연천군수는 “이번 친선 축구 경기를 통해 연천 미라클은 남북 평화의 물꼬를 트는 마중물 역할을 잘해냈다”며 “접경 지역인 연천에서 피어난 유소년 축구단이 남북을 넘어, 세계 평화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레미블루의 자선기금 마련 공연 음악·나눔·송년회 '1석3조' 콘서트

나눔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연말연시. 우리 그룹 공식 밴드인 '레미블루(Remi BLUE)'가 자선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공연을 열었다. 음악이 주는 행복으로 가득했던 그날의 공연 분위기를 전한다.

글 홍보팀 이선화 대리 사진 사회공헌팀 박소운 사원

### 흥겨운 멜로디 따라 즐거운 현장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나는 그대 숨결을 느낄 수 있어요~" 관객들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좌우로 흔들면서 밴드가 연주하는 무한궤도의 '그대에게'를 목청 높여 따라 부른다. 이 곡을 마지막으로 공연은 막을 내렸지만 관객들은 "앙코르"를 외치며 박수와 함성을 계속 보냈다.

지난해 12월 21일 저녁 7시 '레미블루'가 불우 이웃 돕기 기금 마련을 위한 희망나눔콘서트를 열었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라이브투데이에서 열린 이 공연에 약 60명의 관객이 찾아 열띤 응원을 보냈다. 가족이나 연인들과 함께 공연장을 찾은 직원들도 적지 않았다.

레미블루는 프리버드(Free Bird), 158 블루스(Blues) 두 팀과 함께 흥겨운 무대를 꾸몄다. 2시간 동안 진행된 공연은 나를 외치다(마야), 미지의 세계(조용필), 본능적으로(윤종신) 등 16곡의 음악으로 채워졌다. 밴드는 관객과 호흡하며 공연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다.

### 수익금 전액 불우 이웃에 전달

공연이 끝난 후에는 경품 추첨 행사 등을 진행하며 여흥을 이어갔다. 공연장을 찾은 관객들은 "기부도 하고 공연과 경품 추첨 행사까지 즐기는 1석3조의 기쁨을 누렸다", "연말에 좋은 일도 하고 좋은 추억을 만들어서 뜻깊었다. 다음 공연에도 꼭 초대해달라" 등의 소감을 전했다.

이날 거둔 입장료 등 수익금 전액은 형편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레미블루에서 베이스를 연주하는 정재찬 서울중앙영업소 상무는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삼표그룹의 공식 밴드로서, 레미블루도 음악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고자 기획한 공연"이라며 "매서운 한파로 어느 때보다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을 이웃에게 작은 도움이지만 따뜻한 마음이 잘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레미블루는 음악을 사랑하는 레미콘부문 직원들이 모여 2016년 12월 결성한 사내 밴드로 보컬, 기타, 베이스, 키보드, 드럼 등을 맡은 16명의 멤버가 연주와 음악을 향한 열정으로 뭉쳐 합동 연주와 라이브 클럽 공연, 복지시설 위문공연 등의 정기 활동을 펼치고 있다. 레미블루 관계자는 "레미블루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다"며 "음악으로 새로운 즐거움도 찾고 끈끈한 동료애도 느끼고 싶다면 레미블루의 문을 두드려달라"고 말했다.



### INVITATION of REMI BLUE

레미블루는 단순한 합주가 아닌 서로의 연주에 귀를 기울이고 소리를 맞춰가며 곡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수평적이고 끈끈한 분위기를 자랑하죠. 직급을 떠나 서로를 '회원님'이라 부르며 열린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인이려면 누구나 필요로 하는 재충전의 시간. 밴드 활동으로 채워보는 건 어떠세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싶거나 악기를 배우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주세요! 문의 삼표산업 마케팅2팀 차재영 대리

## 성공 글로벌 기업의 초심 경영 첫 마음으로부터 탄생한 혁신

흔히 초심(初心)을 잃은 사람을 일컬어 '개구리 울챙이 적 생각 못한다'고 한다. 지난날의 미천하거나 어렵던 때를 생각지 아니하고 자만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이는 실패의 지름길이다. 기업 역시 마찬가지다. 놀라운 성장에도 불구하고 초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할 때 지속적으로 탁월한 성과를 낼 수 있는 법이다.

글 박숙철(CnE 혁신연구소 소장) 사진 출처 이케아 홈페이지



### 3시간 직원 교육에 600만 달러를 투자한 스타벅스

1987년 창업 당시 단 6개였던 매장을 2,600개로 확장하며 승승장구하던 스타벅스. 하지만 하워드 슐츠(Howard Schultz) 회장은 자신의 열정이 예전 같지 않다고 판단, 2000년 전격 퇴임했다. 그러나 3대 CEO였던 짐 도널드(Jim Donald)의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스타벅스는 고유의 색을 잃어버렸고, 경제 위기로 매출도 급감했다. 결국 하워드 슐츠는 2008년 CEO로 복귀했다.

최고의 커피 맛과 고객 서비스를 되찾는 것만이 해결책을 깨달은 하워드 슐츠는 그해 2월 26일 저녁, 미국 전역의 7,100개 매장의 문을 3시간이나 닫고 직원 재교육에 들어갔다. 손실 비용이 무려 600만 달러에 달했지만, 이렇게 해야 직원들의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후 슐츠는 '초심으로의 회귀'를 강조하며 다시금 최고 품질의 음료와 편안한 공간을 제공하려 노력했다. 이러한 과감한 혁신에 힘입어 2010년 스타벅스는 107억 달러라는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하며 제2의 전성기를 맞았고, 이후 지금까지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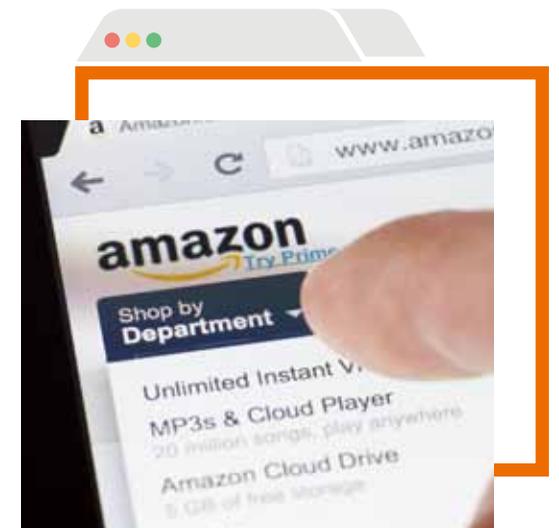
### 전 세계 이케아(IKEA) 매장에 돌담 사진이 걸려 있는 이유

'가구 업계의 공룡'으로 불리는 이케아. 세계 각국에 위치한 이케아 매장에는 '돌담' 사진이 걸려 있다. 사진 속 돌담이 있는 곳은 스웨덴 남부 스몰란드(Smaland) 지역이다. 1943년 잉바르 캄프라드(Ingvar Kamprad)가 17세의 나이에 이케아를 창업한 곳이다. 스몰란드는 암석이 많아 경운이 어려울 정도로 토질이 나쁜 빈곤한 농업 지역으로, 농지를 만들기 위해선 엄청난 양의 돌을 들어내야만 했다. 그리고 그 돌로 돌담을 쌓아 울타리를 치고 바람을 막았다. 그러니까 사진 속의 돌담은 암석이라는 '제약을 극복하고 그것을 오히려 바람막이로 활용한 스몰란드 농부들의 정신이 곧 이케아의 정신이며, 이러한 초심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렇다면 이케아가 극복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제약은 무엇일까? 바로 '가격'이다. 감히 상상하기 어려운 목표 가격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질문을 던지고, 결국 전혀 새로운 방식의 해결법을 찾아낸다. "값비싸고 좋은 물건을 만드는 것은 쉽다. 값싸고 좋은 물건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도전이다." 이것이 이케아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는 '초심'의 핵심이다.

### 아마존의 Day 1(데이 원) 약속

전자상거래를 기반으로 한 세계적인 IT 기업 아마존에는 'Day 1'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증권거래소에 첫 상장한 1997년, CEO 제프 베조스(Jeffrey Preston Bezos)가 주주들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사용한 문구다. 이후 매년 전달하는 공개서한에 늘 이 첫 번째 편지가 첨부되었다. 첫 약속, 즉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표현이다. 이뿐 아니라 베조스는 자신이 근무하는 시애틀 본사의 건물 이름을 'Day 1'이라고 붙였다. 그렇다면 20년 넘게 추구해온 아마존의 초심은 무엇일까? 이는 아마존이 추구하는 4가지 가치(고객에 대한 집착, 발명에 대한 열정, 운영 최적화에 대한 헌신, 장기적 관점의 사고)를 말하는데, 이 중 핵심은 '고객에 대한 집착'이다. 2012년 CNN머니와의 인터뷰에서 베조스는 이에 관해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남들과 다른 점은 고객에 집착한다는 점입니다. 경쟁사에 집착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고객부터 시작합니다." 창업 당시에 사용하던 싸구려 문짝으로 만든 책상과 같은 모양의 '문짝 책상'을 쓰며 울챙이 시절을 잊지 않으려 애쓰는 CEO, 그리고 이를 적극적으로 따르는 직원들의 초심을 잃지 않으려는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날 아마존의 성공이 가능했다.



## 성숙한 나로 거듭나는 길 마음의 키를 키워라

나의 역량을 온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 중심이 서야 한다.  
현대인의 '마음 행감'이 중요한 이유. 내 속을 들여다보고, 상처가 있다면  
치료해 마음을 더 단단히 할 때 우리는 참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다.

글 편집실 참고 도서 <마음 성장 학교> 김은미, <자기깎습니다, 마음> 김종달



### '메타인지', 감정의 근원과 마주하기

철학자 스피노자는 “자기 자신과 자신의 감정을 분명히 알수록 지금 있는 현실을 더욱 사랑하게 된다”고 말했다.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며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질 때 주변은 물론 나 자신까지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이를 위해선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하지만 이는 워낙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돼 외부의 소리가 멈춰야 비로소 들을 수 있다. 이를 도와주는 게 바로 '메타인지(Meta Cognition)'다.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 생각 너머에서(Meta=Beyond) 알아차린다(Cognition)는 뜻이다. 먼저 불편한 감정을 느꼈다면 “내가 왜 이런 감정을 느껴야 하지?”라고 자신에게 물어본다. 메타인지로 들어서는 질문으로, 이는 감정이 어떻게 생성됐는지 관찰하는 것이다. 관찰의 요령은 나와 가까운 사람과 대화하거나 감정과 생각을 글로 적는 방법이 있다. 처음에는 느끼고 있는 감정을 쏟아낼 것이다. 그러다 원인이 된 사건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내가 어떤 판단으로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됐는지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 감정은 내면의 판단에서 시작된다

'적'을 알았으니 이제 '백전백승'할 일만 남았다. 다시는 같은 감정의 상처를 느끼지 않는 것. 이를 위해서는 나쁜 감정을 불러일으킨 판단 기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간혹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에 일희일비한다면 감정만 소모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마다 판단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살피고 그 기준이 합리적이었는지, 혹은 현실에 적합했는지 생각해보자. 그렇지 않다면 바로잡아야 내 마음은 두 번째 화살에도 끄떡없을 정도로 단단해질 것이다.

#### Mind Check 1

##### 판단 기준의 합리성 검증하기

- 1 나와 관계 있는 일인가?
- 2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인가?
- 3 상대방은 합리적 존재인가?
- 4 상대방이 나를 객관적으로 판단했는가?
- 5 상황에 대한 판단 기준이 합리적인가?

### 진정한 성장, 내 안의 그림자를 만나다

스스로 외면한 내면의 어둠을 수용하고 사랑해야만 우리는 온전한 자아를 만날 수 있고 내면의 성장을 이끌 수 있다. 이러한 그림자는 우리가 보려 하지 않거나 이해하는 데 실패한 자신의 일부다. 우리의 무의식에 감춰져 있는 두려움, 부도덕한 충동, 이기적 욕구, 수치스러운 경험 등 스스로 기억에서 지워버렸거나 봉인한 것들이다.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부끄러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만히 생각해보자. 그것이 어쩌면 버려야 할 것일 수도 있다. 나의 상처와 마주하고 그것을 돌보며 앞으로 나아갈 때 진정한 성장은 시작된다.

#### Mind Check 2

##### 마음의 짐 내려놓기-그림자 꺼내기

아래의 질문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어보자. 마음의 짐으로부터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답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 1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나만의 비밀은 무엇인가요?
- 2 그 비밀은 살아오는 동안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 3 그것이 만든 결과는 무엇인가요?
- 4 그 비밀을 계속 간직한다면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까요?
- 5 만약 그 비밀이 사라진다면 당신은 어떤 모습이며, 어떤 느낌이 들까요?
- 6 5번과 같이 되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적어보세요.
- 7 위 항목에 대한 답을 다한 후 어떤 마음이 드나요?

# 보기만 해도 행복해~ 우리 아이들을 소개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듣기 좋은 소리 중의 하나가 아마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웃음소리 아닐까요. 사진만 봐도 절로 웃음 짓게 하는 우리 아이들. 삼표인이 자녀나 조카와 함께한 행복한 순간들을 소개합니다. 정리 편집실



**대상**

비 오는 날, 우산 대신 '아빠 모자'라며 안전모를 쓰는 예쁜 우리 아이들입니다.  
(주)삼표산업 당진공장 영업과 양국열 대리



**금상**

즐거운 목욕 시간, 방긋방긋 잘 웃는 '울 애기', 보고만 있어도 행복해요~  
#웃는거 #천사 #조카바보 #매너손  
(주)삼표 시스템1팀 최수린 사원



12월 3일 결혼기념일, 아내와 추억을 남기려다... 아이가 옆에서 서럽게 울어 결국 세 가족의 추억이 되었네요.  
삼표피앤씨(주) 청주공장 생산팀 이도희 사원



지난해 9월, 둘째 아이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나의 비타민인 두 아들을 원동력 삼아 오늘 하루도 열심히 일합니다!  
(주)삼표산업 호화제공장 연구개발팀 손승완 대리



**은상**

사랑하는 저의 보물들과 서울랜드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벌써 여덟 번째 방문이네요. 애들아, 내년에는 더 신나는 놀이동산을 찾아볼게. 사랑한다, 나의 보물들!  
(주)삼표 경영관리팀 김도국 차장

**동상**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잘 버무려주세요. 사진 속 아이는 저희 둘째인 이지율이랍니다~  
(주)삼표산업 총무팀 이지용 차장



지난 가을, 그네를 타며 웃음꽃이 만개한 우리 딸 서윤이. 서윤이의 행복한 미소는 아빠의 고마움입니다.  
(주)네비엔 FLUFF영업팀 최명식 과장



결혼 후 몇 번의 유산을 경험하고 5년 만에 득남했습니다. 태범이의 출생 100일 기념으로 오랜만에 모인 3부자 사진을 공유합니다.  
삼표기초소재(주) 중기기술팀 설은석 대리



'노오란' 은행잎만 봐도 이렇게 행복하게 웃는 딸을 보니 가을을 선물한 것 같아 덩달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주)경한 스크랩기획팀 김병석 과장



바람을 좋아하는 아들을 위해 삼다도 여행을 갔어요. 지금처럼 예쁘고 건강하게 자라거라 아들이~  
(주)삼표시멘트 광산신규사업팀 김재호 대리

## 로마제국의 건축을 생각하다

사보 <삼표가 GREEN 세상>에서는 로마 시대 건축을 통해 우리 그룹의 새 먹거리를 고민해보는 시간을 마련한다. 이번 호에는 2,000년이 지나도 여전히 빛나는 로마제국 건축의 예술과 기술력에 대해 이야기해본다.

판테온 신전의 돔

### 돌과 대리석의 로마 건물 2,000년을 뛰어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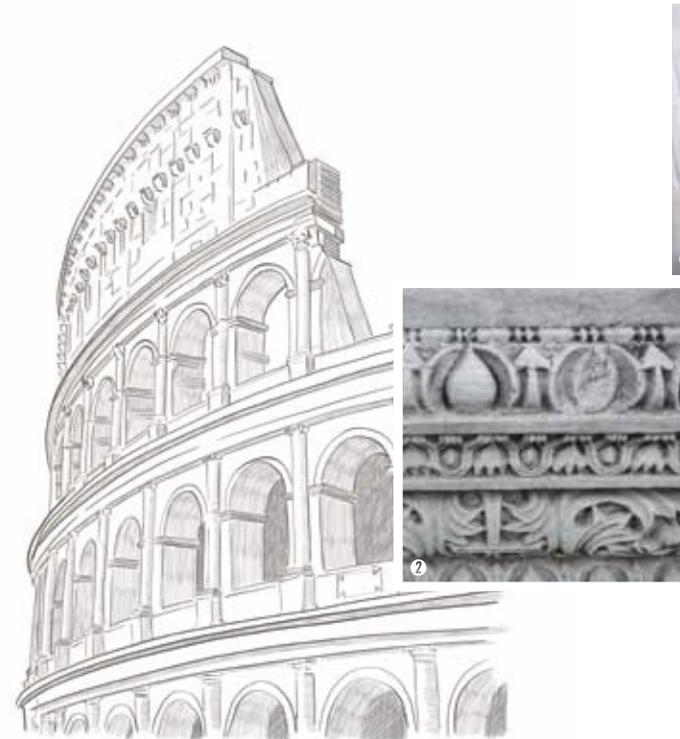
로마에는 유명한 판테온 신전이 있다. 대리석으로 장식된 아름다운 건물로 로마의 신들을 모신 제단이다. 기원전 27년 아그리파가 건축했고 118~128년에 하드리아누스 황제에 의해 재건됐다고 한다. 로마를 찾는 여행객들은 거의 필수 코스처럼 이곳을 방문한다.

신전 돔의 직경은 43m인데 기둥과 철근이 없다. 오늘날에도 기둥과 철근 없이는 저런 돔을 만들지 못한다고 한다. 1506년에 건축이 시작된 바티칸 성당은 돔의 크기를 이교도의 신전인 판테온보다 크게 만들려고 했으나, 결국 42m로 할 수밖에 없었다. 로마의 건축이 발달하게 된 것은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부터다. 그는 퇴임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한다. “나는 흙으로 된 로마를 물려받아 돌로 로마를 재건했다.” 그의 말이 과장은 아닌 것 같다. 사실 로마의 건축물은 돌로 시작해 대리석으로 마감했으니 돌의 제국이라 할 수 있다. 로마인들은 거의 모든 도시에 공중목욕탕과 수도교, 극장, 경기장, 아고라 광장, 도로, 신전 등 공공건물을 돌과 대리석으로 건축했다.

유럽을 여행하며 로마의 건축물을 볼 때마다 내 관심사는 아름다운 건축물의 모습보다 건축에 쓰인 기술과 재료, 특히 건축 접착제인 시멘트였다. 직업병일 것이다. 로마 시대는 시멘트를 시멘텀이라 했고, 포졸란(Pozzolan) 반응을 이용했다. 하지만 로마 건축물들의 2,000년 내구성의 비밀은 이것만으로는 해석이 부족하다.

### 풀 수 없는 수수께끼 로마의 콘크리트

터키는 로마인들이 세운 비잔틴제국이 1,000년 넘게 존속했던 지역이다. 그래서인지 유럽보다 오히려 로마의 건축물이 더 많다. 아쉽게도 많은 건축물들이 지진으로 무너졌다. 그러나 무너진 벽돌 한 장, 깨진 대리석 한 조각에서 로마 건축의 예술과 기술을 볼 수 있었다. 터키에는 유명한 성 소피아 성당이 있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세웠다. 후대의 황제들도 이곳에서 대관식과 결혼식을 할 정도로 아름다운 성당으로 비잔틴제국의 성지와도 같은 곳이다. 그러나 1453년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 비잔틴제국이 멸망하면서 이 성당의 기독교 흔적들이 석회로 지워졌다. 후에 복원됐으나 석회를 벗겨내는 과정에서 순금 도금



1. 남으로 봉인된 소피아 성당의 기둥  
2. 소피아 성당 밖 대리석 조각

글 삼표기초소재  
당진 슬래그공장  
품질관리팀  
이창진 팀장



의 모자이크 그림들이 일부 훼손됐다고 한다. 지금은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성 소피아 성당은 수차례 지진을 겪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관은 거의 보존돼 있는데 내진 설계 덕분이다. 기둥의 천장과 기초석 연결 부분을 봉인한 납이 충격을 흡수했다는 것이다.

성당 밖에는 지진으로 무너져 내린 대리석 조각들이 흩어져 있다. 조각 하나하나에 새겨진 문양들이 막 조각해낸 것처럼 정교하다. 대리석을 하나의 석재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예술 소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로마인들에게 건축이란 기능이 아니라 예술이었고, 그 예술 속에 종교성과 황제의 권력을 심어놓은 것 같다. 황제의 권력이 아니면 이렇게 거대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을 지을 수 없었을 것이다.

비록 깨진 돌 조각이지만 버리지 않고 그대로 둔 것은 하나하나가 예술품이기 때문이라. 무심하게 저렇게 누워 있지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돌 조각 하나하나에 로마인들의 숨결이 들어 있다. 후대 사람들이 이곳을 찾는 것도 그들의 영혼을 느껴보기 위한 것이다. 우측의 사진들은 유적들의 벽체다. 사도 요한 교회와 에페소 셀수스 도서관은 돌 벽돌을 모르타르(시멘트)로 접착시킨 것이다. 아스펜도스 극장의 콘크리트 벽돌 역시 모르타르로 붙였다. 이 세 유적들은 모두 1,700~2,100년이 됐다. 아스펜도스 극장의 콘크리트 벽돌은 강자갈, 강모래와 화산재, 석회, 응회암을 배합해 만든 것이고, 벽돌의 접착제로 사용한 모르타르 역시 강모래와 화산재, 구운 석회로 배합했다.

사도 요한 교회와 아스펜도스 극장의 모르타르는 약간의 풍화 흔적이 보이나 아직도 튼튼해 보인다. 에페소 셀수스 도서관의 경우는 마치 지금 양생을 끝낸 것처럼 너무나 생생하다. 어떻게 2,000년을 견디고도 저런 상태를 유지하는지 매우 놀랍다. 물론 원리는 알고 있다. 화산재와 응회암의 포졸란 반응성의 원리. 그러나 이 재료의 반응성만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된다. 저들 재료의 배합비와 건축 기술이 문제의 답일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그것을 알 수 없다. 아쉽게도. 미국 유타대학의 지질학자 마리 잭슨은 로마의 콘크리트가 2,000년을 견디는 원인을 규명했다. 화산재와 석회, 바닷물로 모르타르를 만들고 화산암 골재를 넣어 콘크리트를 만드는 게 로마인의 기술이라고 했다. 불행하게도 현재는 그 기술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3. 사도 요한 교회 4. 사도 요한 교회의 돌 벽돌과 모르타르



5. 에페소 셀수스 도서관  
6. 에페소 셀수스 도서관 주변의 벽돌과 모르타르  
7. 사도 요한 교회의 무너진 대리석



### 품격이 더해진 로마인들의 기술력

기원전 79년경 로마의 유명한 정치가인 플리니우스는 이런 말을 했다. “짠 바닷물, 파도의 공격에 끊임없이 노출되는 항구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매일매일 강해져 돌덩이가 되어가고 있다네.” 현대의 기술로 만들어진 콘크리트는 한 번 굳으면 더 이상 화학반응이 일어나지 않아 외부의 작용에 붕괴되는 과정만 남는다. 하지만 2,000년 전 로마의 콘크리트는 반응성이 지속되어 더 강해진다. 이러한 기술은 로마 시대의 건축가인 마르쿠스 비트루비우스가 기원전 30년에 화산암과 화산재, 석회를 바닷물과 섞어 나무판에 넣고 다시 바닷물이 스며들게 하는 콘크리트 제조법을 개발한 후 적용됐다. 바로 오늘날의 포졸란 반응성을 이용한 공법이다. 로마 콘크리트에서 희귀 광물인 알루미늄 토버모라이트가 발견됐는데 이 광물이 콘크리트 결합력을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날 이 광물을 생성시키려면 높은 온도가 필요하고 또 소량만 생성된다. 그러나 로마인들은 20℃ 미만에서 지속적으로 생성시키는 기술을 개발한 것이다. 거대한 건축물에서 파편처럼 부서져 나온 대리석 조각들은 터키에서 흔하다. 성 소피아 성당도 그렇고 에페소, 히에라 폴

리스도 그렇다. 너무나 흔해 가치조차 평가하기 어려운, 그러나 저 문양을 보라. 대부분의 무너진 대리석에는 저런 문양들이 있었다. 그것도 음각이 아닌 양각이다. 시간도 비용도 많이 들 것이다. 그럼에도 저런 문양을 만드는 건 건축물의 품격을 높이려는 것이다. 지진이 오더라도 콘크리트는 부서지는 정도가 심하지 않다. 그러나 대리석은 저렇게 부서져버린다. 그만큼 복원이 어렵다고나 할까? 아마도 사도 요한 교회가 복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 대리석은 사용이 어려울 것이다.

터키에서 웬 로마 건축 이야기냐고 할지 모르지만, 터키에는 로마보다 더 로마적인 건축물이 지천으로 널려 있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다니며 로마의 건축물을 많이 봤었지만, 그것은 겉모습뿐이었다. 그러나 터키에서는 건축물 속에서 로마의 영혼을 볼 수 있었다.

### 포졸란 물질의 지속적인 사용 기대

포졸란 반응은 이탈리아 포조리스 지방에서 나오는 화산재의 반응성을 말한다. 포조리스 지방에서 폭발한 화산재가 눈이나 비에 반응하는 것을 발견하고, 건축 재료로 이용한 것이다. 자연현상을

응용한 지혜라고 할까? 오늘날 비록 로마제국의 배합 기술은 알지 못하나 포졸란 반응은 이용 가능하다. 바로 슬래그 미분말과 플라이애시가 포졸란 물질인 까닭이다. 물론 실리카 흙과 같은 다른 포졸란 물질도 있지만 실제 건축물에 범용으로 사용 가능한 것은 이 둘이 유일하다. 중국에서는 화산재를 일부 사용하지만 반응성 보다는 원가 절감 차원의 시멘트 첨가제일 뿐이다. 슬래그 미분말과 플라이애시의 내구성은 이미 입증됐고 해수면 공사에서 유리하다는 것도 널리 알려져 있다. 이는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향후 더욱 좋은 건축 재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삼표 기초소재의 주력 제품인 슬래그 미분말과 플라이애시는 앞으로도 고객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보 <삼표가 GREEN 세상>은 삼표 임직원의 글을 기다립니다. 논문, 여행기, 포트폴리오, 시 등 삼표인이 직접 작성한 글과 작품이라면 분야와 상관없이 환영! 아래 메일로 원고를 보내주시면 '삼표인의 시선' 칼럼 지면에 실을 예정이며 해당 임직원에게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문의 및 접수 : 홍보팀 김미미 사원 kmm@sampyo.co.kr

# TOPIC



## ㈜삼표산업 통합품질시험센터, 업계 유일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

㈜삼표산업 통합품질시험센터가 작년 12월 10일 국내 건설 소재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한국인정기구(이하 KOLAS)로부터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삼표산업 통합품질시험센터가 발급한 건설 소재 분야 시험성적서는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LAC)에 가입한 세계 86개국 89개 인정기구에서 발급된 시험성적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됐다. 이번 KOLAS 인정으로 ㈜삼표산업은 지난해 국가표준화대상 대통령 표창 수상에 이어, 다시 한 번 국제·산업 표준화 활동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박민용 ㈜삼표산업 품질기획 담당 상무는 "KOLAS 인정 획득은 삼표산업의 건설자재 기술력이 세계 수준에 올랐다는 것을 입증하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건설자재 품질 경쟁력 향상과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시험 검사 설비 확충과 인정 범위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0년 10월 설립된 ㈜삼표산업 통합품질시험센터(경기 화성시 소재)는 골재·분체·몰탈·콘크리트 실험실을 보유하고 있다. 이곳에서 원료 검사 및 평가, 콘크리트 시험, 국책 과제, 사내·외 교육 등이 수행된다. 특히 삼표그룹만의 차별화된 브랜드 가치가 반영된 '국내 최초 콘크리트 전문 컨설팅 센터'를 목표로 기술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삼표그룹 관계자는 "국가산업표준(KS)보다 더욱 엄격한 자체 품질 기준(SKS)을 제정해 부적합 원료 반입 사전 차단 등 콘크리트 품질 관리에 힘쓰고 있다"고 전했다.

## ㈜삼표

### 양주공장 인라인 동호회, '전주 월드 인라인 마라톤' 4위

㈜삼표 양주공장 지입 차량(M/T) 차주 5명이 모여 결성한 인라인 동호회(이하 ㈜삼표 양주 인라인 동호회)가 국제 인라인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 작년 11월 3일 전북 전주시에서 열린 '전주 월드 인라인 마라톤 대회' 2km 장년부 남자 부문에서 4위를 차지한 것. 전주 월드 인라인 마라톤 대회는 2012년 WIC(World Inline Cup) 인정으로 국제 대회로 승격된 이후 해마다 각국 인라인 선수들이 참가하는 권위 있는 대회로 성장했다.



㈜삼표 양주 인라인 동호회는 매주 3~4회 훈련을 통해 기량을 키우고 있으며, 회사 차원에서 삼표 로고가 새겨진 유니폼을 협찬하는 등 동호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박제동 차주는 "삼표인이라는 긍지를 가지고 10년간 양주공장에서 근무 중"이라며 "회사가 지원해준 삼표 유니폼을 입고 좋은 성적을 내게 되어 더욱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2019년에는 개인 수상을 목표로 더 열심히 훈련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 온라인 사내 소통 채널 '삼표스토리' 오픈

지난해 11월 21일 삼표인의 온라인 소통 채널인 '삼표스토리'가 문을 열었다. 그룹웨어 내 삼표스토리 게시판을 통해 그룹 주요 행사, 유용한 정보 등이 공유되며 글보다는 비주얼 중심 콘텐츠가 2~3일 간격으로 업로드되고 있다. 게시된 콘텐츠는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24시간 확인 가능하다.



향후 삼표스토리는 게시물을 임직원의 개인 블로그·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 재공유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될 예정이다.

이처럼 다채로운 기능을 통해 그룹 내 소통 창구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삼표스토리는 날로 커져가는 그룹 몸집에 맞춰 경영 철학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계열사 간 시너지를 도모할 수 있도록 운영될 계획이다.

박상현 홍보팀 부장은 "임직원들이 삼표스토리 콘텐츠에 대한 아이디어를 보내주시면 적극 반영하겠다"며 "삼표스토리가 임직원 간 소통의 중심 플랫폼이 되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 ㈜삼표산업

### 영하 10°C에서 타설 가능한 '블루콘 윈터' 출시

㈜삼표산업이 국내 최초로 영하 10°C에서도 타설 가능한 특수 콘크리트 '블루콘 윈터(BLUECON WINTER)'를 출시했다. 국내 시판 제품 중 가장 낮은 기온에서도 타설이 가능해, 콘크리트 양생(굳히기)에 어려움이 많은 겨울철 건설 현장에 특히 유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삼표산업이 이 제품 성능을 측정한 결과, 대기 온도 영하 10°C에서 48시간 후 거푸집 탈형(제거)이 가능한 압축 강도(5MPa, 메가파스칼)로 나타났다. 블루콘 윈터 타설 28일 후에는 설계 기준 강도(28MPa)까지 완전히 굳었다. 일반 콘크리트는 같은 조건에서 일주일만 지나야만 거푸집을 제거할 수 있다. 또 타설 28일 후 일반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는 블루콘 윈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삼표산업 관계자는 "블루콘 윈터는 약 2년간 연구 끝에 개발된 내한 콘크리트로, 국내 1만 8,000m³를 시범적으로 타설하며 성능을 시험한 바 있다"며 "실제로 높은 층고의 건축물에 블루콘 윈터를 사용해 보온 양생 비용 등을 크게 절감했다"고 말했다.

### 초기 압축 강도 극대화한 '블루콘 스피드' 출시

㈜삼표산업이 빠른 탈형(거푸집 제거 등)으로 공사 기간을 앞당길 수 있는 조강 콘크리트인 '블루콘 스피드(BLUECON SPEED)'를 새롭게 선보였다. 블루콘 스피드는 초기 압축 강도를 높여 단기간에 거푸집 탈형이 가능하다. 실제로 블루콘 스피드 성능을 측정한 결과, 대기온도 10°C에서 사용했을 때 15시간 후 압축 강도 5MPa(메가파스칼)가 구현된다.

특히 블루콘 스피드를 사용하면 겨울철 골조 공사 기간을 앞당길 수 있다. 일반적으로 동절기 아파트 1개 층 골조 공사를 마치는 데는 8~9일이 소요된다. 블루콘 스피드는 강도 발현이 빨리 나타나 원사이클(아파트 1개 층 골조 공사) 소요 기간을 이보다 1~2일 줄일 수 있다.

㈜삼표산업 관계자는 "블루콘 스피드는 2015년부터 약 3년 동안 연구 개발한 조강 콘크리트로, 국내 건설 업체에 1만m³ 이상 납품되고 있다"며 "삼표산업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변하는 국내 건설 환경에 발맞춰 다양한 특수 콘크리트를 개발해 시장에 선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 품질기획팀 '품질 운영 회의' 개최

지난 11월 16일 ㈜삼표산업 품질기획팀은 풍납동 콘크리트 교육원에서 이오규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품질 운영 회의'를 진행했다. '품질 운영 회의'는 2019년 그룹 품질에 대한 운영 정책을 소개하고 방향성을 공유하는 자리로 삼표그룹 전 사업장의 품질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이오규 사장은 품질 담당자들에게 격려를 전하고 '삼표' 하면 최고의 품질을 떠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이어 2018년도에 진행된 품질 행사인 '숙련도 경연 대회'와 '품질경영 표어·슬로건 및 사진·공모전'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됐다. 먼저 숙련도 경연 대회 시상식은 44개 사업장이 참여한 가운데 레미콘, 골재, 분체 3개 부문으로 구분해 수상 사업장 포상과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진행했다. 지난해 9회째를 맞은 품질경영 표어·슬로건 및 사진·공모전에서는 270여 건의 응모작을 대상으로 3차 평가를 통해 수상작을 선정했다. 선정된 수상작들은 포스터나 현수막으로 제작해 현재 각 사업장에 비치돼 있다.

품질기획팀 행사 담당자는 "2019년은 행사 10회를 맞아 참여 대상 및 상금의 규모를 더욱 확대할 예정으로, 삼표그룹 모든 임직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삼표인 기술 교류의 장 '삼표기술정보센터(STIC)' 오픈

지난해 11월 30일 그룹 내 프로젝트별로 산재된 지식·기술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플랫폼인 삼표기술정보센터(Sampyo Technical Information Center, 이하 STIC)가 오픈했다. STIC는 그룹웨어 로그인 후 시스템 바로가기 내 '삼표기술정보센터' 아이콘을 클릭해 확인할 수 있다. 사이트(<http://stic.sampyo.co.kr>)로 직접 접속도 가능하며 카테고리리는 기술자료실(논문·동영상·표준·보고서), 브로슈어, 제품 성적서, 고객 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STIC는 주관 부서인 품질기획팀이 운영·관리한다. 내부 활성화가 완료되면 외부와도 공유할 예정이다. 임직원이 이용하면서 불편한 점이나 개선 사항을 전달하거나 보유한 자료를 공유하면 STIC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품질기획팀 관계자는 "꼼꼼하게 자료를 선별한 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다"며 "STIC가 임직원들의 업무와 지식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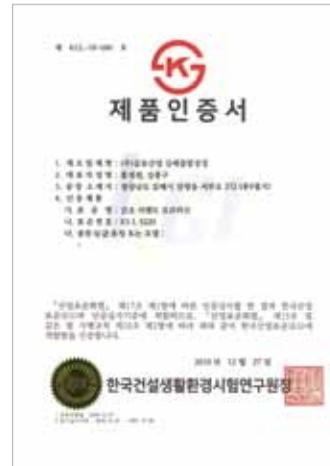
### 레미콘부문 여직원 33명 제빵 봉사 실시

(주)삼표산업 레미콘부문 여직원 33명이 제빵 봉사를 통해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달했다. 지난해 12월 7일 '행복더하기 사랑나눔 빵빵한 데이' 봉사활동을 진행한 것. 봉사단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종로구 서울요리학원에서 3시간 30분가량 직접 빵을 만들었다. 반죽에서부터 재료 준비, 오븐, 포장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직원들이 정성을 쏟았다. 이날 직원들은 창신동 쪽방촌에 거주하는 독거 어르신들에게 직접 만든 빵을 전달했다. 봉사단 관계자는 "우리 가족들이 먹는다는 생각으로 정성스레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하고 느낄 수 있는 '참여형' 사회공헌 활동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김해 드라이몰탈 공장 KS인증 획득

(주)삼표산업 김해 드라이몰탈 공장이 지난해 12월 27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으로부터 드라이몰탈 제품에 대한 한국산업표준(KS)을 획득했다. KS인증 제도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 능력이 국내 산업 표준 기준에 적합한지 심사를 거쳐 KS마크를 부여하는 국가 인증 제도다. 이번 KS인증을 받은 제품은 일반미장, 조적, 바닥, 뿔칠미장 등에 이용된다. KS인증에 따라 경쟁사와 품질 경쟁력에서 우위를 선점하고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김해 드라이몰탈 공장의 설명이다. 김해 드라이몰탈 공장 관계자는 "이번 KS인증 획득은 삼표산업 김해 드라이몰탈 공장에서 생산한 몰탈의 품질력과 공신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지속적인 품질 개선과 연구 개발로 삼표만의 차별화된 기술을 확보해 국내 1등 드라이몰탈 공장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 레미콘사업부 '2019 레미콘사업부 워크숍' 개최

(주)삼표산업 레미콘사업부가 지난 1월 2~4일 경기도 화성시 청호인재개발원에서 '2019 레미콘사업부 워크숍'을 실시했다. 올해 워크숍은 1박 2일에 걸쳐 2차수로 진행됐으며 전국 30개 공장의 공장장과 담당자 등 570여 명이 참석해 열기를 더했다. 2019년 레미콘사업부의 사업 계획·목표 공유, 목표 달성을 위한 임직원 역량 강화를 목표로 기획된 이번 워크숍에서는 부문별 사업 계획 발표, 4차 산업혁명과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한 특강, 직군별 사내 교육 등이 실시됐다. 홍성원 (주)삼표산업 레미콘부문 대표는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녹록지 않은 건설 경기 속에서도 임직원들의 노력으로 적잖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올해는 내실을 단단히 다져 더 큰 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자"고 격려했다.



### 골재사업부 '2019 골재사업부 워크숍' 개최

(주)삼표산업 골재사업부는 지난 1월 4일부터 5일까지 1박 2일 동안 경기도 화성시 소재 청호인재개발원에서 골재사업부 150명 임직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9 골재사업부 워크숍'을 개최했다. 금번 워크숍에서는 각 파트(Part)별 사업 계획을 발표하며 목표 달성 결의를 다졌으며, 직원 간 소통과 협력을 위한 시간도 가졌다. 이날 골재부문 강홍구 대표는 "골재부문 중장기 화두는 '변화'이다. 급변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골재부문도 향후 대형화를 통한 인프라 구축으로, 골재 시장 No.1 위상을 이어 나갈 것"이라며, "골재사업부 임직원 모두가 한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다 함께 손잡고 노력할 때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콘크리트 전문가를 위한 맞춤형 실무 교육

(주)삼표산업 품질평가팀에서는 RC사업부 품질부문 직원의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해 올바른 시험 방법 및 KS 표준, KS인증 제도, 사내 표준에 대한 교육 및 실습을 진행하고 있다. 직무 경력에 따라 중급(과장, 대리 3년차 이상), 초급(대리, 사원) 과정으로 나누어 수준별 교육을 제공한다. 중급 과정은 콘크리트 배합 설계 및 사내 표준에 초점을 맞추어 배합 설계 및 보정 능력을 평가하며 초급 과정은 올바른 시험 방법 교육을 통해 시험 숙련도를 평가한다. 이는 콘크리트 전문가를 위한 맞춤형 교육으로 직무 전문성 향상뿐만 아니라 직무 자긍심을 높인다는 평을 받고 있다.

2017년부터 시행돼 현재까지 197명의 수료생을 배출한 콘크리트 실무 교육은 화성통합품질시험센터에서 1박 2일(16시간) 합숙 교육으로 진행되며 2학점이 부여된다.

### (주)삼표시멘트

#### 어린이 백일장 개최

(주)삼표시멘트는 지난해 12월 20일 강원도 삼척시 삼표시멘트 공장에서 '제2회 파란하늘 파란꿈 어린이 백일장'을 진행했다. 행사에는 삼척에 거주하는 초등학교생 200여 명이 참가해 글짓기 실력을 마음껏 뽐냈다.

(주)삼표시멘트가 주최하고 삼척교육지원청, 삼척문인협회가 후원해 2회째를 맞은 어린이 백일장 행사는 삼척 어린이들의 문학적 소양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고자 기획되었다.

오전 10시부터 5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백일장에서 참가자들은 '가을', '통일', '아버지의 자동차', '가족사진' 등 주제에 맞게 시와 수필 형식의 글을 썼다. 대상 1편, 최우수상 2편, 우수상 4편 등 23편의 수상작이 선정된 가운데, 대상은 정라초등학교 6학년 엄찬식 학생이 쓴 수필 '아버지의 자동차'가 받았다. 어린이들의 흥미를 끄는 다양한 행사도 마련됐다.

(주)삼표시멘트는 이날 시멘트 제조 공정, 시멘트 순환 자원 활용, 삼표그룹의 역사 등을 보여주는 홍보관도 운영했다. 최신 영화를 관람하고 마술쇼, 버블쇼, 보드게임, 민속놀이, 사진 인화기 등을 체험할 수 있는 놀이마당도 좋은 반응을 얻었다. 최돈창 (주)삼표시멘트 삼척공장장은 "어린이들이 각자의 재능과 끼를 펼칠 수 있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주)네비엔

#### 철스크랩부문, 경산사업장 개소

(주)네비엔 철스크랩부문은 작년 10월 10일 경산사업소를 개소했다. 기존 동대구사업소 부지의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해 2018년 2월 신규 부지 계약 후 5월에 착공해 10월 22일 길로틴 첫 생산을 시작했다. 경산사업장은 2019년 처리 물량 12만 톤, 매출액 43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인근 경산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경남 남부 지역 등 신규 영업권역 확대를 위해 교두보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 환경자원부문, 4분기 워크숍 실시

(주)네비엔 환경자원부문은 지난해 11월 16일 전국 각 사업장 직원 약 120명이 모인 가운데 4분기 워크숍을 실시했다. 오전에 대구 팔공산 깃바위 정상을 산행한 직원들은 오후에는 2018년 실적을 돌아보고 2019년 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환경자원부문은 전 직원이 함께 모여 화합하고 소통하는 행사를 분기별로 시행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환경자원부문 국만호 대표는 "2018년 한 해 동안 대표이사 방침에 따라 모두가 열심히 노력해준 덕분에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 2019년에는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함께 힘을 모아 잘 극복해 나가자"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 입사를 축하합니다!

회사명	팀명	이름	직급	입사 일자
㈜삼표	전략기획팀	이주석	5급	2018-10-01
	F/C영업팀 여주영업소(출하)	박창규	6급	2018-11-01
	당진허역팀	최민규	사원	2018-11-05
	사회공헌팀	박소윤	5급	2018-11-12
㈜삼표산업	P팀	이소정	5급	2018-11-12
	HR기획팀	이미연	대리	2018-12-01
	전략기획팀	장재우	5급	2018-12-01
	물탈생산운영팀	배유한	5급	2018-10-01
	양주사업소 생산팀	안종길	5급	2018-10-01
	품질평가팀	정영일	5급	2018-10-01
	품질평가팀	박종훈	5급	2018-10-01
	품질평가팀	양대협	5급	2018-10-01
	품질평가팀	염재웅	5급	2018-10-01
	품질평가팀	성두경	5급	2018-10-01
	품질평가팀	고홍석	6급	2018-10-01
	품질평가팀	조민형	6급	2018-10-01
	품질평가팀	김영우	6급	2018-10-01
	김해물탈공장 생산팀	허민탁	사원	2018-10-01
	김해물탈공장 생산팀	이석진	사원	2018-10-01
	김해물탈공장 생산팀	고동현	사원	2018-10-01
	김해물탈공장 생산팀	박승겸	주임	2018-10-01
	재무팀	김보미	6급	2018-10-04
	사업개발2팀	이창환	차장	2018-10-05
	혼재공장 품질과	이효은	5급	2018-10-10
	사업개발2팀	박중웅	과장	2018-10-10
	사업개발2팀	단창수	부장	2018-10-10
	인천물탈공장 생산팀	이두희	사원	2018-10-10
	선박운영팀	김병길	선원	2018-10-10
	사업기획팀	정현	차장	2018-10-15
	풍납공장 관리과	이재훈	5급	2018-11-01
	송도공장 관리과	임요셉	5급	2018-11-01
	성수공장 관리과	박은정	사원	2018-11-01
	인천물탈공장 품질팀	김동현	5급	2018-11-01
	물탈남부영업팀	정한글	5급	2018-11-01
	화성물탈공장 생산팀	김민찬	사원	2018-11-01
	골재품질팀	조준희	대리	2018-11-01
	구매기획팀(장)	성백영	부장	2018-11-05
	물탈남부영업팀	이호재	차장	2018-11-05
	물탈남부영업팀	한승민	5급	2018-11-05
	계량사업소	임주비	대리	2018-11-07
	계량사업소	이효환	5급	2018-11-07
	인천공장 관리과	임지현	5급	2018-11-07
	김해물탈공장 생산팀	윤상욱	5급	2018-11-12
	송도공장 관리과	임성대	사원	2018-11-12
인천공장 관리과	이정호	주임	2018-11-14	
화성물탈공장 생산팀	이기영	주임	2018-11-14	
회계팀	권정상	대리	2018-11-23	
HRD팀	김정우	과장	2018-12-01	
재무기획팀	장동훈	5급	2018-12-01	
물탈신제품사업팀	이경훈	5급	2018-12-01	
아산공장 관리과	고광훈	주임	2018-12-04	
사업개발2팀	김형무	5급	2018-12-10	
수급전략팀	이중섭	5급	2018-10-01	
예산사업소 생산팀	박태현	5급	2018-10-10	

회사명	팀명	이름	직급	입사 일자
삼표기초소재(주)	광주공장 관리과	홍은희	사원	2018-10-10
	전기팀	이우건	부장	2018-10-01
	물류해운본부	하은태	상무	2018-10-01
	광산신규사업팀	최대웅	대리	2018-10-10
	기술영업팀	유하나	사원	2018-10-15
	광산생산팀	이원섭	대리	2018-10-15
	설비팀	김상균	사원	2018-10-15
	설비팀	김지환	사원	2018-10-15
	전기팀	박건	사원	2018-10-15
	공장개선팀	박상진	사원	2018-10-15
	공장개선팀	이인욱	사원	2018-10-15
	공장개선팀	김창용	사원	2018-10-15
	경영관리팀	정우선	사원	2018-10-15
	공장개선팀	이병춘	과장	2018-10-22
	광산생산팀	주용현	대리	2018-10-22
	보전관리팀	배승환	과장	2018-10-22
	HR팀	김영석	선임사원	2018-10-22
	광산기획팀	최성호	대리	2018-10-28
	기계팀	최진규	차장	2018-11-01
	㈜삼표시멘트	공장개선팀	안준형	차장
회계팀		이승환	선임사원	2018-11-01
광산신규사업팀		민성현	과장	2018-11-01
광산기획팀		우택규	대리	2018-11-05
운영관리팀		이승은	사원	2018-11-07
해운팀		이주원	대리	2018-11-12
설비팀		김종연	차장	2018-11-12
HR팀		김영철	과장	2018-11-21
설비팀		이용학	과장	2018-11-21
해무팀		이하영	선임사원	2018-11-22
삼표피앤씨(주)	해사기술지원팀	임철민	차장	2018-11-26
	광산신규사업팀	이상운	소장	2018-12-01
	특수영업팀	이원준	차장	2018-12-01
	경영관리팀	한범석	전무	2018-12-10
	청주공장 생산팀	염동렬	5급	2018-10-01
	포항공장 품질팀	권윤한	5급	2018-10-01
	마케팅1팀	윤여상	대리	2018-10-01
	제천공장 생산팀	유현우	가능	2018-10-01
	청주공장 D/W운영팀	최원석	가능	2018-10-15
	제천공장 생산팀	박종선	가능	2018-10-24
청주공장 D/W운영팀	신태철	가능	2018-11-05	
청주공장 D/W운영팀	이민재	가능	2018-11-05	
청주공장 D/W운영팀	김준호	가능	2018-11-05	
청주공장 D/W운영팀	김현성	가능	2018-11-05	
PC공사팀	배태준	차장	2018-11-09	
포항공장 생산팀	정원	5급	2018-12-01	
여주공장 관리팀	유동희	6급	2018-12-04	
㈜엔트랙	연마유지보수팀	조석현	가능	2018-10-10
	영업팀	강혁	5남	2018-10-25
㈜네비엔	AF전략기획팀	주풍	부장	2018-11-26
	삼척협력팀	최양섭	차장	2018-12-01

\* 삼표 계열-삼표시멘트 입사 날짜 : 2018년 9월 22일~12월 14일  
\* 경한 계열 입사 날짜 : 2018년 9월 22일~12월 24일

## 독자 퀴즈



Q1. 지난해 겨울, 창립 52주년 기념으로 삼표 임직원들은 저소득층 가정에 OO 1만 1,500장을 전달했습니다. 삼표그룹의 전신 삼강운수는 1960년대 OO 수송을 목적으로 설립된 물류 회사이기도 합니다. OO는 무엇일까요?

○ E

Q2. 2019년은 기해년으로 황금 OO의 해입니다. 예로부터 동양 문화에서 재물복을 의미하고 다산을 상징하며, OO꿈을 꾸면 횡재수가 있다고 여기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친숙한 동물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ㄷ ㅈ

✉ 두 문제의 정답을 2월 20일까지 이메일[kmm@sampyo.co.kr] 홍보팀 김미미 사원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신세계 상품권 3만 원권을 드립니다. 퀴즈 정답을 보내주실 때 이번 호 기사 중 재미있었던 칼럼과 그 이유, 혹은 사보에서 다루길 원하는 내용을 함께 적어주시면 퀴즈 당첨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 지난 호 퀴즈 정답

- Q1. 삼표블루섬
- Q2. 김해

## 당첨을 축하합니다

- 삼표산업 특약점영업팀 정지훈 과장
- 삼표산업 성수공장 영업과 정상업 대리
- 삼표산업 구매기획팀 정종화 대리
- 네비엔 재무팀 최지웅 사원
- 삼표기초소재(주) 중기기술팀 문효주 사원

## 함께 만드는 사람들

삼표그룹 사보는 계열사 곳곳의 소식을 전 그룹사에 전파하고자 사보 기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뉴스거리를 제보하고 싶으신 분들은 소속 기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본사 (주)삼표 홍보팀

이선화 대리 lsh8853@sampyo.co.kr  
김미미 사원 kmm@sampyo.co.kr

### 레이콘 (주)삼표산업 레이콘공장운영팀

박종필 사원 pjp1027@sampyo.co.kr

### 골재 (주)삼표산업 골재신사업팀

이상윤 사원 sylee5444@sampyo.co.kr

### 분체 삼표기초소재(주) 분체기획팀

박은지 사원 knam0908@sampyo.co.kr

### 시멘트 (주)삼표시멘트 경영관리팀

이재우 대리 jaewoo2.lee@sampyo.co.kr

### 철도 삼표레일웨이(주) 경영기획팀

전지혜 사원 jjh6906@sampyoenc.com

### 건설 삼표피앤씨(주) 파일영업팀

이동섭 사원 b\_suave@sampyoenc.com

### 철스크랩, 환경자원 (주)네비엔 환경기획팀

서동욱 차장 sdu2004@neven.co.kr

### 물류 (주)삼표 DT팀

박순찬 대리 akskslarhk@sampyo.co.kr

### IT (주)삼표 시스템2팀

김은선 대리 dbswls1208@sampyo.co.kr